

JMF,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우승

전주대 기계자동차공학과 4학년 재학 서정운·성훈기·이현석·김선웅씨 등 4인방

“대학생 자동차 대회까지 서울 수도권 몇 개 학교에서 싸움을 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당당한 패기와 열정으로 일그러진 패관주의를 바로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일 전주대학교 공학관에서 만난 JMF(Jeonju-University Motorsports Formula) 팀은 이같이 말하며 “처녀 출전한 대회에서 전종의 강호를 꺾고 지방대의 반란을 연출해 더욱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JMF는 12~14일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포뮬라(Formula)부문에서 우승했다.

자작자동차대회는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최하고 군산시가 후원했다. 엔진을 제외한 차체를 학생들이 직접 설계, 제작해 레이싱을 펼치는 이 대회에는 전국 102개 대학에서 201개 팀, 2,3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그동안 자동차대회는 한양대, 국민대, 아주대 등 수도권 대학들의 리그였다. 이들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선배들이 노하우와 데이터 등을 대물림 해준다. 일부 학교는 전담 매니저까지 두고 지원한다. 외부업체들도 스폰서로 참여해 막대한 지원을 해준다. 때문에 신생 동아리가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힘들다.

신생 전주대 팀의 반란을 이끌어 낸 주역은 기계자동차공학과 4학년



JMF는 12~14일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포뮬라(Formula)부문에서 우승했다.

에 재학 중인 서정운, 성훈기, 이현석, 김선웅씨 등 4인방. 이들은 첫 출전한 대회에서 외부 도움 없이 사실상 자력으로 우승을 일궈 더욱 기쁨이 크다.

JMF는 2014년 맨손으로 출발했다. 다들 어릴 때부터 자동차라면 민사를 제치고 달려들던 '차 매니아' 들로 차량을 혼자서도 차량을 분해, 조립할 실력을 갖췄다. 차량이 고장나도 카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후 이들 4인방은 교내 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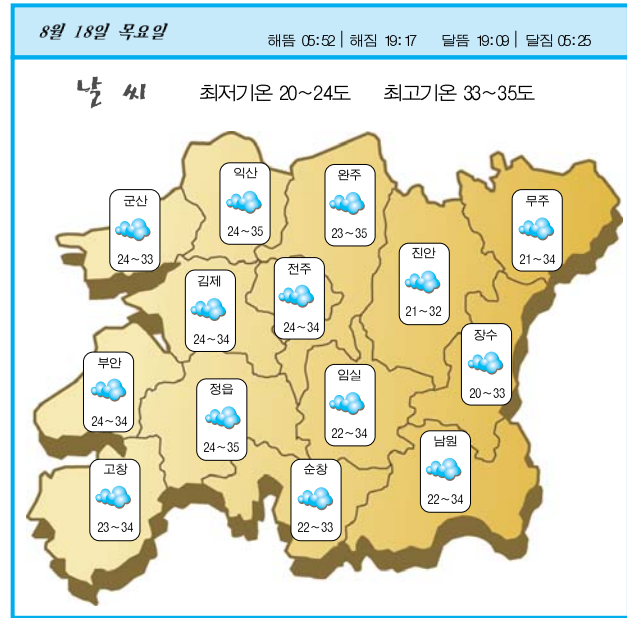
관 실습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처음 2년간은 도면을 그리고 또 그리는 설계 작업에만 매달리고, 올 초부터는 직접 망치질해대며 1,000여 개의 부품들을 제작했다.

차량 제작비용도 900만원으로 타 학교(2,000~4,000만원)보다 턱없이 적었다. 차량 이름을 자신들이 비용을 낸다는 의미를 지닌 'SAVE'로 지을 정도였다. 제작비용은 학교 측이 400만원, 업체가 200만원을 후원해줘 승부를 텄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난 JMF는 이번 대회에서 설계와 제작, 드라이빙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승 상금 200만원과 2017년 대회를 위한 자동차 제작을(쥬포스코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팀장 서정운 학생은 '예전에 사랑을 받다 점차 사라져 가는 구형 차량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올드카 복원' 회사를 친구들과 손잡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민형기자



전주동물원 '한여름밤의 동물캠핑' 진행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전주동물원이 지역아동들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주동물원(원장 김두일)은 17일 문화 소외계층인 드림스타트 아동 4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름 밤의 동물캠핑을 진행했다.

이번 동물캠핑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여름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주동물원이 문을 닫은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이번 동물캠핑을 통해 지난 5월 새롭게 문을 연 동물치유센터(동물병원)에서 초음파 진료 및 혈액검사 체험을 실시하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또, 동물진료 체험교실을 통해 동물사랑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배웠다.

이와 함께 참석 아동들은 전주동물원의 대표 동물로 선정된 수달이 전주 삼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영상물을 함께 시청하고, 사자·호랑이사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사육사와 함께 곰과 호랑이 등 야생성 동물사를 돌며 책에서 접할 수 없었던 동물들을 키우면서 느낀 사육사의 진솔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 여름 밤의 추억을 만들었다.

김두일 전주동물원장은 "동물은 단순 구경거리가 아닌 인간과 교감하는 존엄한 생명이다며 "앞으로 동물복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동물사를 개선해 전주동물원을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학부·석사과정 통합 '애리조나대 마이크로 분교' 추진

한 학기 동안 애리조나대학 로저스 법대 수업 받을 경우 18학점을 인정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4년 만에 전북대 학사 학위와 세계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인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석사 학위를 동시에 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대는 최근 지미카터 국제학부 소속 학생들이 한국에서 7학기를 공부하고 애리조나대학 법과대학(대학원 과정)에서 1학기를 다니며 일정 학점(18학점)을 취득할 경우 학사와 석사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수학위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대에서 1학기 동안 수업을 들은 애리조나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에게는 12학점을 인정해주시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학·석사 통합 프로그램

공동 시행의 연장선으로 오는 12월 미국 애리조나대학 부총장이 전북대를 방문, 캠퍼스의 전북대 설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가칭 '애리조나대 마이크로 캠퍼스(University of Arizona Micro Campus at CNU)'를 대학 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북대는 최근 지미카터 국제학부와 애리조나대 로저스 법대 간 학·석사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양 대학 총장이 공식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전북대 지미카터 국제학부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애리조나대학 로저스 법대에서 수업을 받을 경우 18학점을 인정받고, 애리조나대학 학생들은 전북대 지미카터 국제학부에서 수업을 들을 경우 석사과정 12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애리조나대학이 전북대 지미카터 국제학부의 4대목(12학점)을 석사 졸업 취득학점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이는 미국 애리조나대학이 전북대 지미카터 국제학부의 차별화된 교과 과정을 석사과정 수준으로 인정할 결과다.

전북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미카터 국제학부에서의 12학점과 로저스 법대에서 18학점 등 총 30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애리조나대학교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갖추게 돼 전북대생들이 학·석사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상호 학점인정과 학사 학위 교류에만 국한됐던 기존 대학들의 복수 학위제와 획기적으로 차별화 된 학위 프로그램으로, 전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애리조나대학 캠퍼스 유치에 청신호를 밝혔다는 평가다.

전북대가 미국 대학의 캠퍼스를 설치하면 미국 교수진과 학생들이 전북대 내에 머물며 수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전북대가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위상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상 상승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고민형기자

도내 초·중·고등학교 이번 주부터 개학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학을 시작한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82개 학교가 개학을 했고 ▲17일 58개교 ▲18일 86개교 ▲19일 50개교가 개학해 이번 주에만 총 276개 학교가 개학을 한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에는 272개 학교가 개학을 하게 돼 도내 학교

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대부분 개학을 하게 됐다.

나머지 26개교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에 개학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이 시작된 시점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폭염예방 발령 등 상황에 따라 외부활동 등 자체 수업 단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제10회 장수 한우랑

다이나믹한 무대 속으로 Go! Go!

사과랑축제

2016. 9. 2.(금) ~ 4.(일) 전라북도 장수군 이양공원 및 장수군 일원

9/2 KBS전국노래자랑 13:00~15:30 (현철, 송대관, 김혜연, 박상철, 박진선) 개막 축하공연 19:00~22:00 (EXID, 홍진영 등 13개팀)

9/3 뮤지컬 '논개 꽃으로 피어나다' 19:00~20:00 레드락 페스티벌 20:00~21:50 (장미여관, 노브레인)

9/4 한우랑사과랑 가요제 13:00~15:00 주현미 K-재즈 콘서트 19:40~21:30

장수몰 MALL | NAVER | 장수몰 | 검색 | 검색하세요